



가을이 오는 소리 들녘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다. 백로(白露)를 하루 앞둔 7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서 한 주민이 붉게 익은 고추를 햇볕에 정성스럽게 말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고속철 ‘찜땀 예산’ 영남에 10년 뒤쳐진다

10조 사업비중 4년간 고작 4% 투입 예산집중 경부고속철은 올11월 완료

정부 예산의 ‘찜땀 투자’로 호남지역 고속철도망이 영남보다 최대 10년 이상 뒤처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반면 경부고속철도는 2단계 공사가 오는 11월 완공되는 데 이어 도심구간 지하화까지 서두르고 있어 국가기간시설 설치의 우선순위에서 호남이 배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공사에 들어간 호남고속철도(충북 오송~목포, 230.9km) 공사에 지난 4년간 전체 사업비 10조4901억원의 4.22%에 불과한 4428억원이 투입됐다.

이는 총 사업비 4조9057억원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정부 예산이 우선 투자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올해 9450억원이 배정되기는 했으나 초기 투입 예산이 적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조3003억원씩 꾸준히 배정돼야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다. 반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128.6km)는 오는 11월 완공되며, 여기에 대전·대구 도심구간 지하화(41km) 공사까지 추진돼 오는 2014년 마무리하고 본

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전국 주요 거점도시를 1시간30분대로 묶는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으나 호남고속철도는 2017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은 고속철 서비스의 혜택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 및 물류 이동은 물론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 등에서도 상대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며, 지역 불균형도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28년 전에 착공, 16년 전에 완공됐으며 2단계까지 끝내고 이제는 수조원

의 예산을 들여 대구와 대전의 도심 고속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예산투자액은 물론 주변 개발 시기 등에서 영남과 호남이 큰 차이가 나고 이는 다시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고속철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1~2015)’을 발표했으나 호남고속철도 내 고속철도역 주변의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역세권 개발은 고속철 완공(2017년) 시점과 계획 수립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속철도가 다른 지역보다 늦춰지면 관광, 문화,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의 잠재력이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호남고속철도 완공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광주·목포 순회 어록전

광주일보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8월18일)를 맞아 오는 9월9일 전남도청을 시작으로 광주와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어록전’을 개최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어록전은 지난달 성환리에 막을 내린 서울전(8월11~17일·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의 순회전으로 고(故)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37명의 서예가들이 김 전 대통령이 남긴 30여권의 책 중에서 주옥같은 글귀들을 선정해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한 180점을 선보입니다.

- 주최 : 광주일보·김대중 평화센터
- 주관 : 김대중대통령 추모 어록전 행사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 순회전 일정 : ◇전남도청 전시회=9월9일~17일·전남도청 로비
◇광주전=9월24일~10월2일·김대중 컨벤션센터
◇목포전=10월8일~13일·목포문화예술회관

■ 문의 : 02-720-1161(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011-275-4330

光州日報社

정부, 대북 쌀지원 긍정 검토

李대통령 “남북관계 적절히 하려고 한다”...남북 대승호 선원 귀한

북측이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4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는 한적이 북측의 수해와 관련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한 데 대한 수정 제의를 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4일 오후 6시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

해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수해 지역에 비상식량과 의약품 대신 쌀과 시멘트, 중장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쌀과 중장비 등 북한에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지원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측이 나포한 대승호와 선원 7

명의 송환 의사를 전달 밝힌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쌀을 지원할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 통보한 100억원 규모 이내에서 어떤 품목을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55대승호’의 선원 7명과 선박은 30일만인 이날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해경함정에 인계돼 속초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8탄

유코 하세가와 동경 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요 근현대미술...’

※ 선착순 100명·무료

10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보문고 입시설명회

“특목고(자사고) 입시 전략”
고입전문가 임성호-주혜늘교육기획이사
대입전문가 아석록-메가스터디평가소장
일시: 9월 12일(일) 오후 3시
장소: KBS공개홀(상무지구)
“본교 입시 요강과 학교 운영 방안”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 CC로 초대합니다.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 코스규모 : 총 27홀 par108(전장 9,575m)

모집인원 : 100명

분양금액 : 1억원

정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 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중 택일
- A형 :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준회원 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 B형 :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입회금 납부안내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만원)

구분	입회금액	납입방법	
		계약금	잔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가입문의 Tel.061)330~5001~5 Fax.061)330-5009

VIP 1차정회원
10월경 분양예정
(3억 3,000만원)